

## 태풍 ‘카눈’ 오늘 통영 상륙해 전국 관통...속도 느려 피해 커질 듯

강도 ‘강’ 단계로 청주까지 이동 후 ‘중’으로 격하  
 남해안 지나며 수증기 머금고 몸집 커질 가능성  
 시속 20km 내외...재산피해 1위 태풍 ‘루사’와 유사

6호 태풍 ‘카눈’이 10일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풍이 남해안을 지나면서 수증기를 머금고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있으며, 속도도 느려 태풍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9일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뒤, 11일 새벽에는 북한으로 북상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태풍은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2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태풍은 10일 오전 9시께 경남 통영 북서쪽 약 40km 부근 육상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10일 오후 9시께 서울 부근까지 전국을 관통한 뒤, 11일 오전 3시께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태풍이 물러가는 11일까지 권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100~200mm ▲강원영동 200~400mm(많은 곳 600mm 이상), 강원영서 100~200mm ▲대전·세종·충남, 충북 100~200mm다.

또 ▲광주·전라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100~300

mm(많은 곳 400mm 이상), 울릉도·독도 30~80mm ▲제주도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다.

특히 오전부터 내일(10일) 사이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경상서부내륙, 전라동부내륙, 전남남해안, 제주도에는 시간당 40~60mm(많은 곳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30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기간 많은 비와 함께 순간풍속 초속 4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현재 카눈은 강도 ‘강’ 상태로 이동 중이며, 이는 10일 오전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강도 ‘강’은 순간풍속 초속 33~44m로,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가진다.

하지만 10일 오후 3시께 청주 남동쪽 약 20km 부근 육상을 지나며 강도 ‘중’ 수준으로 약해지겠다. ‘중’ 단계는 순간풍속 초속 25~25m로, 지붕을 날려버릴 수 있는 정도의 세기다.

특히 카눈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전국을 관통해 올라가며, 많은 피해를 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카눈은 시속 12km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10일까지 20km 안팎의

속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02년 5조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던 태풍 ‘루사’와 비슷한 속도다. 당시 시속 15km로 전국을 관통하며 강릉에 하루 동안 870mm 이상의 비를 뿌렸으며, 재산 피해는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남해상 쪽 수온이 현재 29도에 육박하는 등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증기를 머금고 몸집을 더 키운 상태에서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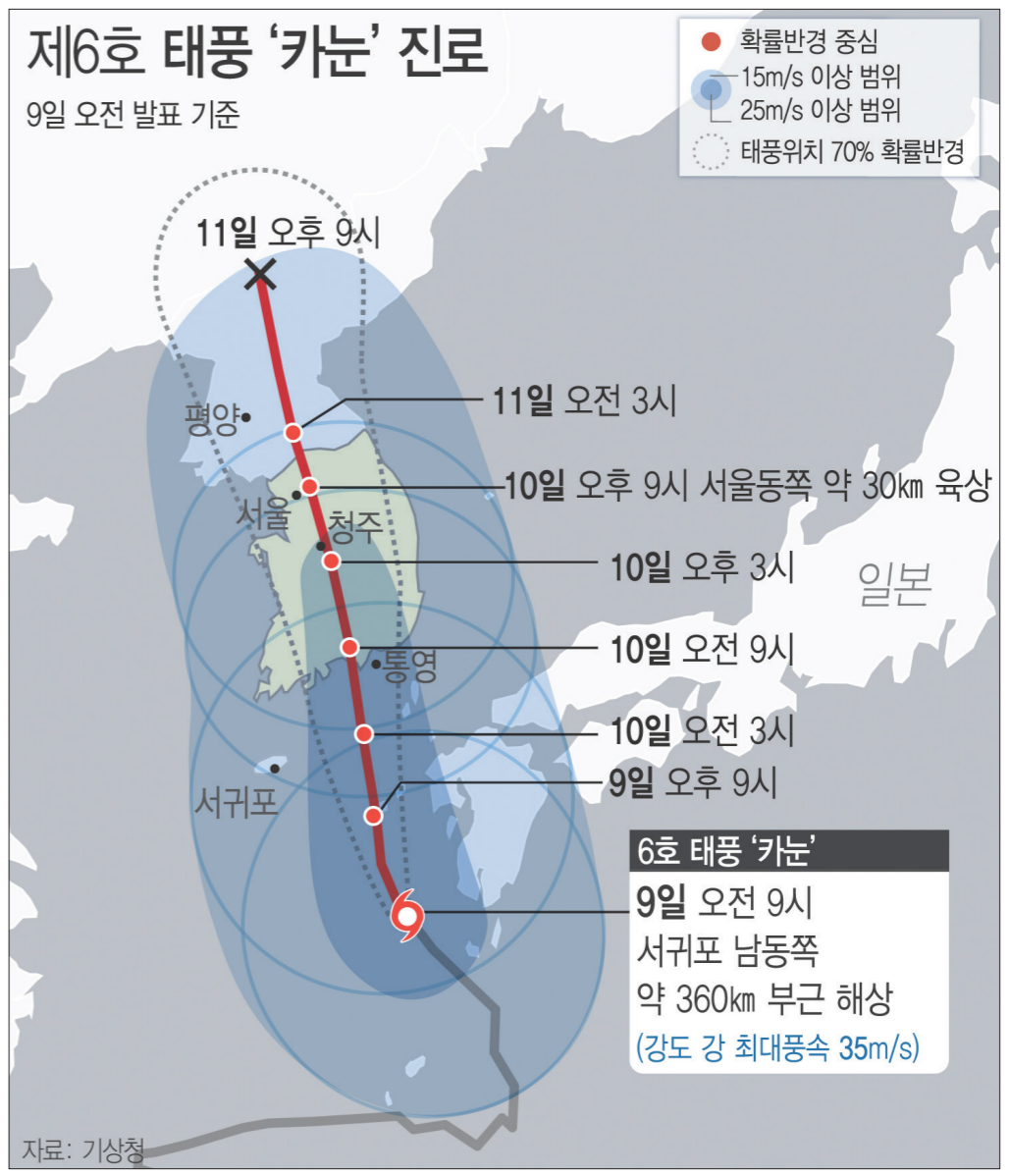
태풍은 남해안에 상륙한 뒤 산맥 등의 영향을 받아 곡선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와 함께 강풍도 예상됨에 따라, 태풍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7호 태풍 ‘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14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km의 속도로 서진하고 있다. 이후 점차 일본 남쪽 해상으로 접근한 뒤 14일 오전 9시께 도쿄 남남서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6호 태풍 카눈의 북상 이후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큰 폭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란’의 이동 경로 또한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란’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태풍 란은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마셜 군도 원주민어로 ‘스름’을 의미한다.



## 코로나 19 중증·사망 증가세...방역당국 “필요시 병상 추가 지정”

질병청, 코로나 유행 주간 분석 결과  
 일평균 5만명 확진 “사망 발생 적은 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월 들어 하루 평균 5만명대로 올라섰지만 방역 당국은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유행 확산세가 6주 연속 이어짐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중환자실 가동률도 50%에 육박했다. 방역 당국은 필요하다면 병상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월 첫 주(7월30일~8월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위험도는 지난 1월15일부터 29주 ‘낮음’을 유지하고 있다.

방대본은 “확진자 발생 규모는 지난 겨울철 유행시기와 유사하나 사망자 발생 규모는 낮은 수준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8월 첫 주 신규 확진자는 34만6695명으로 전주 대비 10.5% 증가했다.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9528명이다. 지난 1~7일 0시 기준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388명으로 6월 일일회복 이후 처음 5만명대로 올라선 상태다.

유행 확산세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는 1.09로 7월 첫 주 1.1 이상으로 올라서 7월 3~4주 1.19까지 올랐으나 4주 만에 1.1 아래로 감소했다.

여름방학 등 영향으로 10대 연령대의 일평균 발생률은 2주 연속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확진자 규모가 6주 연속 증가했다.

7월 3주차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45.6%로 전주(45.2%)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 누적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는 7.8%를 차지한다.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수도 지난달 말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감염 후 증세

가 악화된 위중증 환자 수는 일평균 177명으로 전주(170명) 대비 7명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49명(84.2%)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사망자 수는 97명으로 전주(88명) 대비 9명 늘었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96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80세 이상이 61명, 70대 22명, 60대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7월 3주차 코로나19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치명률은 0.03%, 중증화율은 0.09%로 나타났다. 누적 치명률은 0.11%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은 1.78%, 70대 0.41%, 60대는 평균치인 0.11%다.

방대본은 “사망자 수는 지난 겨울 유행 정점 시기 대비 약 4분의 1 수준”이라며 “확진자 발

생 규모가 12월 중순의 4분의 3 수준임을 고려 하더라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68개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47.6%, 중증중병상 가동률은 62.3%다.

방대본은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병상 및 일반병상을 활용하는 현 병상 대응체계 내에서 지속 대응하는 한편 병상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병상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